

産銀 추가 제안에도 현산 묵묵부답... 아시아나 M&A 남은 변수는

1 이동걸 회장 임기 만료 2 금호 과징금 3 코로나 여파

(산업은행)

産銀, 1조5000억 추가 지원 제시
인수 부담 낮췄지만 노딜에 무게
시간끌기 지속면 플랜B 가동할 듯

산업은행의 제안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일주일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다시 아시아나항공 M&A(인수 합병)가 '노딜'로 기울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놓고 마지막 담판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채권단이 1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현산 측의 인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권단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의 영구채 80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방안도 현산 측에 제안했다. 채권단은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약 37%를 보유하게 돼 최대주주가 된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이 같은 이 회장의 제안이 나오지 일주일이지났지만, 여전히 현산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채권단이 인수 대금을 대폭 낮췄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항공업계가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은 만큼 최종 인수시 동반부실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자칫 모빌리티 그룹으로의 전환은 고

사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만 더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자공시시스템 다테에 따르면 현산도 지난 2분기 매출 9569억원, 영업이익 14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24.8% 줄며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다. 산은의 대폭적인 인수 대금 인하에도 여전히 아시아나항공의 M

&A가 '노딜'로 끝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운명을 결정짓는 막판 변수는 3가지로 압축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와 최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과징금, 아시아나항공의 경영난 등이다.

먼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절차를 이끌어 온 이 회장은 오는 10일을 끝으로 현 임기가 만료된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본인 임기 내에 그간 주도적으로 맡아왔던 아시아나항공 이슈를 결론내 고자 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산이 다시 '시간 끌기'에만 집중할 경우, 산은이 먼저 국유화 등 플랜B를 가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이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일부 점쳐지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국내식점점사업권 등을 매개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해 특수관계인에

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금호그룹에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도 공정위로부터 고발과 함께 81억 81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자금 수혈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려던 금호그룹에는 예상치 못한 과징금으로 신속한 매각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현산의 경우, 그간 코로나19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를 지적해 온 만큼 최종 인수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 이슈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불투명한 항공업황의 정상화 시기와 이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경영난 심화도 현산의 최종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평이다. 지난 2분기 화물 부문으로 인해 '깜짝 실적'을 냈지만, 여전히 국제선 대부분이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코로나19 이전의 경영상태를 근시일 내 회복하기는 요원하다는 업계 중론이기 때문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매각 무산땐 기안기금 투입 후 플랜B”

>> 1면 'HDC현산, 빅딜'서 계속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2020년 반기 기준 2291.3%에 달한다. 당초 HDC현산이 인수절차를 밟던 전년(659.5%)보다 낮게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이미 지원한 영구채 등 8000억원 외 추가로 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총 1조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앞서 HDC현산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나서면서 금호산업개발이 보유한 30.77%를

3228억원에 사고, 추가로 유상증자를 통해 2조1772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키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모두 지원해야 했던 유상증자 금액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일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영구채를 추후 주식으로 바꿔 HDC현산에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영구채 한도 확대에 불편한 입장을 보여왔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영구채를 인수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구조를 바꿀 수 있어서다. 현산이 해당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갖도록 하고, 여력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이를 매각해 현산의 1대 주주 지위를 흔들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HDC현산이 인수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시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여부를 밝히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매각협상 종료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이번 제안한 방안이 최종 방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각이 무산되면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 뒤, 추후 다시 매수자를 찾는 확률이 더 크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삼성, ‘멈추지 않는 삶’ 위한 신제품 공개

영국 버추얼 컨퍼런스서 진행
온라인 가상공간 활용해 소개
홍가전, 갤럭시 탭 등 선보여

삼성전자가 가상 공간으로 하반기 주요 신제품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2일 영국에서 버추얼 컨퍼런스 ‘멈추지 않는 삶’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연결성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개인과 세상을 연결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일상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비전을 전 세계 소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프로젝트 ‘더 프리미어(The Premiere)’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G5’ ▲‘비스포크’ 냉장고와 ‘그랑데 AI’ 기능을 대거 채용한 세탁기·건조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2’를 비롯한 최신 모바일 제품과 주변기기 등을 소개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제품을 실제와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유럽 지역 참석자들에게 언리얼 게이밍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목을 받았다. 더 프리미어는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출시한 빅프로젝터다. 최대



멈추지 않는 삶 행사 장면.

/삼성전자

120형과 130형까지 확장 가능한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북미를 시작으로 유럽과 국내에 연내 출시 예정이다.

더 테라스도 유럽에 첫 선을 보였다. IP55의 방수·방진 등급과 한낮에도 최상의 화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대 2000 니트의 밝기, 외부 환경에 따라 화면 밝기와 사운드를 최적화하는 ‘AI 컨트롤’ 기능 등을 갖춰 실외 환경에서도 탁월한 시청 경험을 제공해 준다. 유럽에는 55와 65, 75형 3개로 출시된다.

그랑데 AI 기능을 대거 적용하고 빠른 세탁으로 유럽에서 호평 받아온 ‘퀵드라이브’ 기술을 접목한 세탁기와 건조기 신제품도 내놨다. ‘AI 맞춤추천’과 맞춤세탁, 코스 연동 등을 쓸 수 있는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태블릿 제품인 ‘갤럭시 탭 A7’과 신규 5G스마트폰 ‘갤럭시 A42 5G’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갤럭시 탭 A7’은 프리미엄 메탈로 마감한 베젤 디자인에 10.4형 화면,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되는 퀵스피커와 오래가는 배터리를 이동 중에도 최적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유럽총괄 마케팅 책임자 벤자민 브라운 상무는 “삼성전자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기술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멈추지 않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유럽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주식시장 독점 안돼... ‘제2 거래소’ 목소리

>> 1면 ‘개미가 일군 거래대금’서 계속

이같은 추세가 12월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5137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KRX의 수수료수익을 감안하면 올해는 수수료 수익이 5000억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증권사는 치열한 경쟁으로 고객을 선점하는데 비용을 쓰는 반면 증권 유관 기관은 주식시장 활성화의 수혜를 오롯이 누리며 ‘앉아서 돈 먹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10년 동안 유관기관 수수료는 제자리다. 다만 예탁결제원은 2012년 20%를 내렸고, 지난해 9월 전자증권제도를 시작하면서 일부 수수료를 낮춘 바 있다.

한국거래소(KRX)와 예탁결제원은 독점 시장이다. 복수의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만 해도 24개 거래소가 서로 경쟁하는 체제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앞서 제2의 거래소가 설립되는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반발이 컸다. 독점적으로 받는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 우려가 큰 것”이라면서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글로벌 거래소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2008, 2009, 2011년 등 증시가 호황일 때 유관 수수료를 면제해준 적이 있다”면서 “올해도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있으며 수수료율을 조정하기 보다는 받는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에게 최저 수수료를 통해 혁신적인 수익률을 제고해야 하는 ‘로보어드바이저’에서도 사무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예탁결제원이 정률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 운용 시 기준 산출 등 사무관리 업무는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면서 “그러한 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 유관기관은 마치 은행처럼 꾸준히 이자를 받아가는 사업구조로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엔 소홀한 것 같다”면서 “증권사가 꾸준히 혁신을 거듭하면서 개인투자자 유입을 늘리고 있다면, 유관기관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투자와 각종 혜택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손음지 기자 sonumji301@